

# 현안과 과제

■ 남북관계 전문가 통일의식 설문조사

# 목 차

## ■ 남북관계 전문가 통일의식 설문조사

Executive Summary .....	i
1. 조사 개요 .....	1
2.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.....	2
①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 .....	2
② 통일세에 대한 인식 .....	4
③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영향력 .....	5

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,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총           괄   :   이 부 형 이 사 대 우 (2072-6306, Leebuh@hri.co.kr)

통일연구센터 : 이 용 화 연 구 위 원 (2072-6222, yhlee@hri.co.kr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이 해 정 연 구 위 원 (2072-6226, hjlee@hri.co.kr)

## Executive Summary

### < 요약 >

#### ■ 개요

현대경제연구원은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 간 통일·외교·안보 분야의 전문가 98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

#### ■ 조사 결과

**(전문가 통일의식)**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(98.0%)은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, 통일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전문가들은 전년도에 이어 '완전한 통일(35.7%)'보다는 '1국가 2체제의 평화공존(37.8%)'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. 다만 전년 대비 '1국가 2체제의 평화공존'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소폭 줄어든 반면, '완전한 통일'을 선호한다는 응답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전문가들의 상당수(72.4%)는 통일이 1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하였다. 전문가들 3명 중 2명(75.5%) 이상은 통일세 신설에 찬성했다. 한편, 통일세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거나, 연 10만원 이하를 부담하겠다는 비율은 증가한(2016년 42.3%→2017년 58.2%) 반면, 연 11만원 이상 부담하겠다는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**(통일에 대한 주변국 영향력)** 2016년 조사에 비해 미국(2016. 7 57.8% → 2017.10 50.0%)의 통일 영향력에 대한 비중은 축소된 반면, 러시아(동 기간 5.5% → 15.3%)의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. 한편, 과반수 이상(51.0%)의 전문가들은 중국을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 국가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#### < 각 국가별 통일 호감도 >

구분		2012.10	2013.11	2015.7	2016.7	2017.10
가장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 나라	미국	68.2	56.2	49.5	57.8	50.0
	중국	18.8	38.5	42.5	36.7	33.7
	일본	1.4	0.0	0.0	0.0	1.0
	러시아	11.6	5.3	8.0	5.5	15.3
가장 걸림돌이 될 것 같은 나라	미국	11.3	28.0	25.3	23.3	23.5
	중국	69.0	55.0	44.8	51.1	51.0
	일본	19.7	17.0	27.6	25.6	25.5
	러시아	0.0	0.0	2.3	0.0	0.0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2012.10, 2013.11, 2015.7, 2016.7, 2017.10.

## 1. 조사 개요

○ 현대경제연구원은 통일의식에 대한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

- 조사 시기 : 2017년 10월 25일 ~ 11월 3일 (10日 간)
- 조사 방법 : 설문지 조사
- 조사 대상 : 연구원, 교수,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·외교·안보 전문가 98명
- 조사 내용 : 통일의 필요성과 편익, 통일비용 부담 의사,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영향력 등을 조사
- 표본 오차 : 95%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±3.08%

<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주요 내용 >

구분	주요 설문 내용
①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통일의 필요성</li> <li>- 통일의 편익</li> <li>- 통일의 형태</li> <li>- 통일예상시기</li> </ul>
② 통일세에 대한 인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통일세 신설의 필요성</li> <li>- 통일비용 부담 의사</li> </ul>
③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영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통일에 가장 영향력이 클 것 같은 나라</li> <li>- 통일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줄 나라</li> <li>-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나라</li> </ul>

주 : 통일에 대한 인식은 이전 조사(2011.11, 2012.10, 2013.11, 2015.7, 2016.7)와 비교 분석하였음.

## 2.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

### ①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

#### ○ (통일의 필요성)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

- “귀하께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의 98.0%가 필요하다고 응답
  - 필요 없다는 의견은 1.0%에 불과했고, 모르겠다는 의견도 1.0%에 불과함
  - 이전 조사결과와 비교하더라도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전문가들 모두 크게 공감

#### < 통일의 필요성 >

(%)

구분	2013.11	2015.7	2016.7	2017.10
필요하다	98.1	97.7	97.8	98.0
필요없다	0.0	0.0	0.0	1.0
모르겠다	1.9	2.3	2.2	1.0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2013.11, 2015.7, 2016.7, 2017.10.

#### ○ (통일편익)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은 통일편익에 대해 긍정적 평가

- “귀하께서는 통일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? 아니면 손해가 된다고 보십니까?”라는 질문에, 전문가의 절대 다수인 98.0%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
  - 5차례의 조사에서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95.0% 이상의 높은 비율로 응답

#### < 통일편익 >

(%)

구분	2011.11	2013.11	2015.7	2016.7	2017.10
도움이 된다	96.2	98.0	97.7	97.8	98.0
손해가 된다	3.8	1.0	1.1	0.0	1.0
모르겠다	0.0	1.0	1.1	2.2	1.0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2011.11, 2013.11, 2015.7, 2016.7, 2017.10.

○ (통일의 형태) 전년도 대비 '1국가 2체제의 평화공존(44.1→37.8%)'이 낮아진 반면, '완전한 통일(30.0→35.7%)'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응답

- 전문가들의 응답 가운데 '1국가 2체제의 평화공존' 비중은 소폭 줄어든 반면, '완전한 통일'에 대한 응답률은 2016년 결과보다 증가

· “통일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. 귀하께서는 어떤 수준의 통일을 원하시는지요?”라는 질문에, 정치·경제적 측면의 ‘남북한 완전한 통일 국가’에 대한 선호 비중이 이전년도 조사에 비해 5.7%p 증가

< 통일 형태 >

구분	2011.11	2013.11	2015.7	2016.7	2017.10
남북한 완전한 통일	27.8	41.0	31.0	30.0	35.7
1국가 2체제 평화공존	43.0	34.3	43.7	44.1	37.8
자유로운 왕래수준	27.8	23.8	25.3	24.8	25.5
현 상태도 괜찮다	1.3	1.0	0.0	1.1	1.0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2011.11, 2013.11, 2015.7, 2016.7, 2017.10.

○ (통일예상시기)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통일이 1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했고, 특히 전년에 비해 비관적 응답 비중이 증가

- “귀하께서는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?”라는 질문에, 전문가의 상당수(72.4%)가 1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

· 특히 1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응답은 전년도의 69.0%에 비해 3.4%p 증가

< 통일예상시기 >

구분	2011.11	2013.11	2015.7	2016.7	2017.10
5년 이내	6.3	5.7	4.6	4.4	4.1
6~10년	29.1	23.8	31.0	24.4	20.4
11년 이상	63.3	68.6	59.8	69.0	72.4
불가능하다	1.3	1.9	4.6	2.2	3.1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2011.11, 2013.11, 2015.7, 2016.7, 2017.10.

② 통일세에 대한 인식

○ (통일세 신설) 전문가들의 통일세 신설 찬성 비중이 크게 증가

- 전문가 3명 중 2명(75.5%) 이상은 통일세 신설에 찬성한다고 응답
  - “통일을 위해서는 많은 통일 재원이 필요합니다. 귀하께서는 통일에 대비한 통일세(통일계정)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, 전문가의 75.5%가 찬성한다고 응답
  - 특히 2016년 조사 결과에 비해 ‘찬성’ 응답 비율이 12.1%p 대폭 증가

< 통일세 신설 >

구분	2011.11	2015.7	2016.7	2017.10 (%)
찬성한다	54.3	63.2	63.4	75.5
반대한다	45.7	31.1	33.3	21.4
모르겠다	0.0	5.7	3.3	3.1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2011.11, 2015.7, 2016.7, 2017.10.

○ (통일비용 부담 의사) 연간 11만원 이상 부담하겠다는 응답률은 감소한 반면, 10만원 이하를 부담하겠다는 비중이 크게 증가

- 2017년 조사결과, 통일세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거나, 연 10만원 이하를 부담하겠다는 비율은 증가(2016년 42.3%→2017년 58.2%)한 반면, 연 11만원 이상을 부담하겠다는 비율은 감소
  - 특히 연 1만원 이하 소액부담 비율이 이전 조사 대비 7.7%p 크게 증가했고, 연 11~50만원 이하 고액부담 비율은 13.9%p 크게 감소

< 통일비용 부담 의사 >

구분	2011.11	2013.11	2015.7	2016.7	2017.10 (%)
부담하고 싶지 않다	10.1	2.8	5.7	6.7	8.2
연 1만원 이하	13.9	2.9	11.5	5.6	13.3
연 2~10만원 이하	32.9	27.6	32.2	30.0	36.7
연 11~50만원 이하	36.7	42.9	34.5	33.3	19.4
연 51만원 이상	6.4	23.8	16.1	24.4	22.4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2011.11, 2013.11, 2015.7, 2016.7, 2017.10.

③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영향력

○ (통일 호감도) 한반도 통일 영향에 대한 러시아의 호감도가 크게 상승했고, 미국과 중국은 전년도의 결과와 유사

- 러시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크게 개선(2016년 5.5%→ 2017년 15.3%)
- 미국을 여전히 한반도 통일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평가
  - 호감도 : 2016년 57.8%→ 2017년 50.0%로 7.8%p 하락
  - 비호감도 : 2016년 23.3%→ 2017년 23.5%로 0.2%p 상승
- 중국은 미국에 이어 통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두 번째 국가이나, 한편으로는 가장 큰 걸림돌 국가로 지목
  - 호감도 : 2016년 36.7%→ 2017년 33.7%로 3.0%p 하락
  - 비호감도 : 2016년 51.1%→ 2017년 51.0%로 0.1%p 하락

< 각 국가별 통일 호감도 >

구분		2012.10	2013.11	2015.7	2016.7	2017.10
가장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 나라	미국	68.2	56.2	49.5	57.8	50.0
	중국	18.8	38.5	42.5	36.7	33.7
	일본	1.4	0.0	0.0	0.0	1.0
	러시아	11.6	5.3	8.0	5.5	15.3
가장 걸림돌이 될 것 같은 나라	미국	11.3	28.0	25.3	23.3	23.5
	중국	69.0	55.0	44.8	51.1	51.0
	일본	19.7	17.0	27.6	25.6	25.5
	러시아	0.0	0.0	2.3	0.0	0.0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2012.10, 2013.11, 2015.7, 2016.7, 2017.10.

이용화 연구위원 (2072-6222, yhlee@hri.co.kr)  
 이해정 연구위원 (2072-6226, hjlee@hri.co.kr)